

광주 AI영재고,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인근에 설립

7천평 부지 학습연구·기숙사동 내년 착공...2027년 3월 개교 지스트와 접근성 고려...국가AI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 활용

광주 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인접한 첨단3지구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바로 옆 부지(북구 오룡동 486 일원)에 건립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9일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지 크기, 유해시설이 없는 주변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두루 살폈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지스트(GIST)와의 접근성이다"며 "AI영재고는 지스트(GIST) 부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업 프로그램 운영, 지스트의 기반시설(인프라) 활용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요소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집적단지

의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도 작용했다.

광주 인공지능(AI)영재고등학교 설립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1월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지스트(GIST) 부설 AI영재고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올해 AI영재고 실시설계비로 국비 31억7500만원을 확보했다.

AI영재고 설립 부지가 확정되면 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게 됐다.

광주 AI영재고는 약 100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2만40㎡,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학습연구동과 기숙

사동 2개 동이 건립된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건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 개발, 교직원 및 학생 선발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정원은 150명이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총 3년 원칙이지만 무학년·졸업 학점제가 운영되며, 인공지능(AI) 융합 교과가 편성된다.

광주시는 이로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원), 실무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사다리를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I영재고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9일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지 크기, 유해시설이 없는 주변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두루 살폈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지스트(GIST)와의 접근성이다"며 "AI영재고는 지스트(GIST) 부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업 프로그램 운영, 지스트의 기반시설(인프라) 활용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요소였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공

광주의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을 완성할 책임기관으로, AI대표도시가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며 "AI

영재고가 첨단3지구에 자리함으로 첨단3지구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설, 기업, 교육기관이 집적된 명

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AI)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양농협, NH농협카드 연도대상 '대상' 수상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은 지난 9일 노보텔 엠버서더 용산에서 열린 'NH농협 카드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NH농협카드 연도대상은 1996년 '카드 세일즈왕' 제도로 시작해 매년 카드 사업 성장에 가장 많은 실적을 거양한 직원과 사무소를 수상

하는 상으로 카드부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다.

광양농협은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슈퍼마켓과 병원·약국 등의 할인으로 생활비 아끼는 카드와 주유, 통신비, 인터넷 쇼핑, 커피 전문점 할인 등 젊은 고객을 위한 카드 및 국내 및 해외여행에 특화된 카드 등으로 고객의 연령과 소비처를 고려해 적합한 카드를 적극 마케팅한 결과 의외로 많은 고객들이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카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었다.

또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1인 1카드 갖기 운동'을 전개해 농협카드가 없는 조합원에게 맞춤형 카드 추진을 한 결과 'NH농협카드 연도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 할 수 있었다.

광양농협은 NH카드 연도대상 뿐만 아니라 종합업적 4년 연속 1위, 금융자산 1조4천억원을 달성했고, 클린뱅크 '금' 달성탑 수상, 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 손해보험 위더스 상 수상, 농촌지도 종합평가 우수, 농축산물 판매 업적평가 우수 등을 달성하면서 전국 최고 농협임을 다 시한번 입증했다.

허순구 조합장은 "경기 침체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농협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조합원, 고객분들에게 더 좋은 카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마케팅에 열정을 쏟은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이번에 수상을 할 수 있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양농협은 농업인과 지역민이 모두 농협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농협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해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전남, 내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비 확보 시동

전남도가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3천19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천39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56지구를 발굴,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 등 재해 취약 시설과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발굴한 신규 지구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지구 2천300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8지구 3천220억 원 ▲재해위험급경사지 정비 22지구 66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1지구 202억 원 이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침수·붕괴·유실 등 재해 취약 요인을 해

소하는 주거 단위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이다.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하천, 펌프장, 우수관거, 급경사지, 저수지 등을 종합 정비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확대 정책에 따라 2024년(3지구 1천219억 원)보다 늘어난 5개 지구 총사업비 2천3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재해 위험 요인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중점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최대한 많이 선정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그린알로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